일조권 침해 통한 이웃사랑

(마22:34~40)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조권 침해 통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일조권을 침해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웃사랑을 성경에서 원하는 참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조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햇빛을 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리 중에서 환경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환경권 안에 일조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에 관련된 가장 고전적인 얘기라면, 아마 알렉산더 대왕과 통 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에 사는 디오게네스를 알렉산더대왕이 찾아갑니다.
통 속에 누워서 햇빛을 쬐고 있던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대왕이 질문을 하지요.
그 당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다 아시는 대로 '지금 대왕께서 태양과 나 사이에 서 계시면서 내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좀 비켜 서주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대왕께 원하는 겁니다.' 일조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일조권이 침해가 되는 경우는 태양과 일조권을 침해 받는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로막히면 일조권이 침해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반드시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일조권을 내가 침해하는 위치에 서있을 때, 다시 말해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해서 태양을 가로막고 있는 위치에서만 디오게네스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태양이신 하나님과 이웃사이에 내가 지금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있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제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제1, 제2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22장에 들어와서만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데나리온의 모습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때도 우리가 노예의 낙인이라고 하는 비유적 소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사랑을 얘기 했습니다.
돈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잘되게 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건강, 내 출세, 내 인생의 성공 이런 거 절대 내 마음에 각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워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이삭의 아버지다'라는 의식이 먼저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하고서야 이삭을 아들로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수분해 형태로 놔두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개 시켜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인간관계가 모두 분절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온 이야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먼저 우리의 초점을 두 번째 중요하게 여겨진 계명, 이웃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크게 한 두 가지를 한번 꼽아 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은 조금씩 달라요.
신명기 쉐마 본문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로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로 해야 될 사랑을 얘기하신 겁니다, 우선해서 해야 될 사랑을.

그러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는 '같은 크기로'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뒤에 같은 크기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크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이 같은 대상이 아닌 한에는, 내 이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마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박 지성 선수가 축구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박 지성 선수에게 '똑같은 크기로 야구를 사랑해라'라는 말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시 가끔 짬이 나면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던 야구가 기억이 나서, 추억에 사로잡혀서 가끔 글러브를 들고 벽에다 공을 튕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야구 글러브를 갖고 야구를 같이 해 줄 동료가 팀 중에 있겠습니까? 혼자 벽치기나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야구를 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구처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점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런 얘기 말이 들어요.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 중에 고아로 자라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해진 백악관에 자문관까지 되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한국에서 고아로 자라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정말 대단한 인생의 역정을 이루어 냅니다.
이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교사의 이웃사랑을 접하게 돼서 그 인생을 가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 고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게 되는 자의 변화되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 아니면 계획 속에 없었다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져 나간 인생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려 그랬었는데 이웃사랑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병을 고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뜻 이었을까, 아니면 이웃사랑까지 고려해서 그 아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루어 봐요.
요한복음 3장16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산과 구름과 동식물, 이 모든 것 다 포함하겠지마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을 향한 구원을 전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하면, 독생자 주신 것이 나무가 독생자를 믿을 순 없는 거니까, 호랑이가 독생자를 믿을 순 없는 거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서 이웃이 누구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사람, 지금 60억 인구 중에서 나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가 다 나의 이웃입니다.
근데 그 나의 이웃 되는 5999999999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 이웃,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가까이 있는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나의 부모님들로부터 해 가지고 멀리 있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외국 사람까지 다 다~ 내 이웃이에요.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알 것 없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돈을 보태줬지마는 실제로는 그 가난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는데, 자꾸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 거지근성을 길러준 건 아닐까요?
김 진홍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청계천에 가서 정말 낙오자들인 그 빈민들과 함께 생활할 때, '쌀을 나눠주면서 시작한 것이 청계천 선교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조권 침해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애리조나 사막, 모하비사막,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정말 엄청난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서 소모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애리조나 사막이라든지 모하비사막 같은 곳에,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주나 다 사막 아닙니까? 여기에 쏟아지는 태양열을 모아서 전기를 일으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화력발전이나 핵발전소처럼 핵이라는 연료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화력발전소에서 기름을 때거나 석탄을 때가지고 터빈을 돌리지 않습니까?
석탄 값 기름 값이 들지가 않아요, 태양열은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거예요.
단지 터빈만 만들면 되요, 그 태양열을 통해서 돌릴 터빈만, 그럼 전기가 나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렉산더대왕의 위치에 서있어야 된다는, 알렉산더대왕의 위치에 서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이웃사랑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서있으면서 이웃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내 이웃과 태양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에 대한 사랑을 보낼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내가 서있는 위치가 알렉산더대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웃은 이웃대로 따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그가 살아간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이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이웃을 향해서 애리조나 사막에서 또 쏟아지는 태양열처럼,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를 받는 집열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양열 집열판이 돼야, 태양열 집열판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관통해서 이웃을 향하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를 만나야 하고 그와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는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실 만큼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전달이 되려면, 내가 내 에너지를 끌어 올려서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쓰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지금도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애리조나 사막의 태양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아서 그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서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전해 줍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목숨으로 내 뜻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를 향해 사랑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와 똑같이 나를 이용해서 허락하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한 사람을 택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태양열의 집열판으로 삼아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양열의 집열판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디오게네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디오게네스 몫이에요.
일조권 침해의 위치에 서서, 정말로 일조권을 침해하느냐, 일조권을 보장해 주느냐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관건이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자식을 만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과 함께 살고 함께 만나야 되는 필연성 안에서 필연적인 조건 안에서,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집열판으로 모아서 집열판이 되어서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보내주느냐 하는 게 관건이고, 그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치에서 진짜 방해하는 것과 방해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자식에게 보낼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막아서 집열판이 되는 게 아니라 일조권을 침해함으로서 자식을 향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나누어지지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서 일조권 침해의 위치에 있으면서 집열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조권 침해의 위치에서 일조권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왜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웃에 대해 죽는 겁니다.

참 묘한 역설이지요? 이웃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아내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라 그랬어요, 부모도, 다~ 죽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마음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충족하게 되었을 때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웃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충족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때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방해 받지 않고 나를 관통해서 그들에게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집열해서 보내주는 집열판이 이웃사랑인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의도로 내 뜻으로 하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이웃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므로 이 세상에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로 되어야, 내가 집열판 노릇을 하면서 이웃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태양열 같은 에너지를 다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것이에요.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몰입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달이 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 200%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웃사랑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사이에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서있음을 의식하는 것이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치에서 지금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족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집열판 노릇을 하면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 이웃사랑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므로 세상에 대해 완전히 모든 관계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족된 뒤에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치에서 침해하지 않고 집열판이 되어서.

내 만나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집열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